

“사회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 실천해요”

현장속으로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임원 수련대회

침체된 직장직능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직장직능 불자회 임원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수련회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스님)은 7월 5-6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포교원장 혜총, 직지사 주지 성웅, 신도국장 재인 스님과 불자회 임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직능 연합신행단체 임원수련대회’를 개최했다. 2001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수련대회는 수련프로그램과 특강, 화합의 장 등을 통해 신심증장과 더불어 각 연합단체 임원진간의 친목 도모와 직장직능불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입제식으로 문을 연 수련회는 ‘종교환경변화에 따른 신행단체 임원들의 역할’(김영일 포교차장)과 ‘사상체질에 따른 조직 활성화 방안모색’(류종형 명인서원 대표컨설턴트) 등을 주제로 한 두 차례의 특

강에 동참해야 했다. 공이 4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참선수수는 졸린 눈을 부릅뜨며 고요하고도 포켓포켓하게 진행됐다. 번잡한 도심의 세간사를 벗어나 잠시나마 번뇌·망상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다. 아침공양에 이은 명적암 순례는 공기 좋은 황악산과 하나 되어 걷는 포행 시간이었다. 아침 산사에서 그야말로 밥먹고 참선하고 절하고 걷는 시간들이 모두 명상 아님이 없다.

6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신행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짧은 시간임에도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불자회 조직의 체계화와 신행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호 언론사불자연합회장은 “각 단체는 정기법회와 교리강좌, 회원들의 복지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생활활동을 하나로 묶는 One-Stop 시스템을

사회공헌도가 가장 높은 앞서가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며 “안전운행 기원법회나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선 직원들을 위한 등달기 등 구성원과 함께 하는 친근한 불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희 세무사불자회 회장도 “매달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조계사에서 국제정불자회와 함께 합동법회를 보고, 매달 조계사에서 무료 세무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며 “자원봉사가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것이 보살행의 첫걸음을 걸음”이라고 말했다.

2000년 이후 내리막을 걸어온 직장직능불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신도회 임원들의 발언에는 보살의 원력이 묻어나 있었다. 개신교 장로가 대통령이고 종교개혁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사회 곳곳에서 곳곳하게 실행을 펼쳐나가는 직장 불자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했다.

9시부터 이어진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법문 역시, “일상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직장 불자들이야말로 이시대의 수행자다”라는 격려를 담았다.

혜총 스님은 “밥먹고, 세수하고, 일하고, 졸릴 때는 바로 그 일상생활 속의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곧 깨달음이란 의미에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말했다”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금 직장직능단체 불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법을 실천하며 포교하는 현장의 수행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0명의 원력불자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의 현장을 떠나 적막한 산사에서 불심을 다지며 동체대비의 삶을 발원한 수련회가 더없이 소중한 시간들로 다가왔다. 비록 하루 밤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흙탕 같은 사회 속에서 연꽃 같은 삶을 연출하리라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글·사진·김성우기자

불자회 임원 80여명 참석 김천 직지사서 개최

직장 신행단체 활성화·불법홍포 방안 등 논의

강, 1080배 참회정진, 화합의 장,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법문, 암자 순례, 참선 등으로 진행됐다.

첫날 입제식에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직장직능 불자들이 발심을 새롭게 하는 수련회를 마련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1박2일 동안 수행과 토론을 통해 다진 원력으로 사회속에서 불법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날 두 차례의 강의 일정이 끝난 후 80여 회원들은 저녁 10시부터 1080배 정진에 도전했다. 하지만 평소 격무에 시달린 중년의 직장 불자들의 체력이 좋을 리 만무하다. 50분간 절을 한 후 10분씩 쉬 때마다 한 두 명씩 포기자가 속출했다. 이튿날 새벽 1시, 1080배를 끝까지 마친 불자들은 30여명. 절을 다 하지 못한 불자들은 염불로 도반들을 응원했다.

1080배 정진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불자들은 불과 3시간의 잠을 잔 후 3시 30분 시작되는 새벽예

강취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젊은 불자회원 확보와 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장수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회장은 “신행단체 대표자들이 종교편향과 같은 중요 사안이 있을 때는 물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신행단체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각 단체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고민과 문제점 등을 해결해 조직적인 포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포교 활성화를 위한 사회봉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도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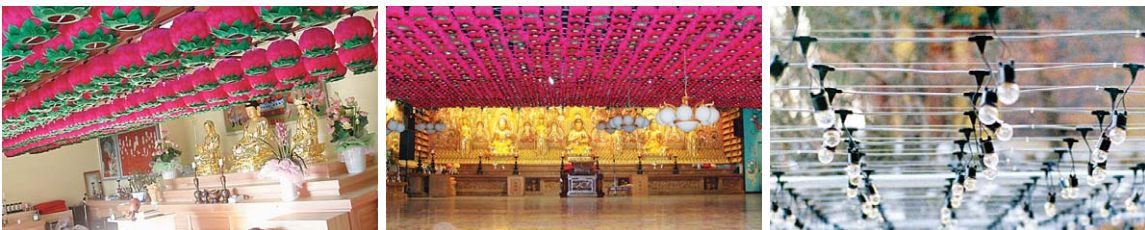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이동숙 총무는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기독교 선교의료사업에서 좋은 배울 필요가 있다”며 “이 시대에 부응하는 의료포교 등 보다 적극적인 포교 마인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 정찬연 운영위원장은 “철불협은 98년부터 환경법회와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등을 펼쳐 공사내에서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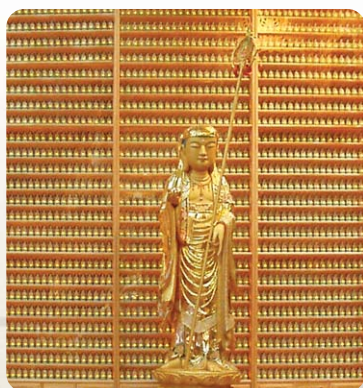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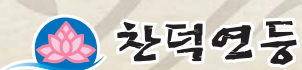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